

#1. <어린이 경제신문> 지면

'오늘'을 읽고 '내일'을 만납니다!

어린이 경제신문

제 1230호 주간 2023년 11월 15일 econoi.com 02) 714-7942

『꽃자와 시호의 우당탕탕 창업 이야기』 이성강 선생님 인터뷰
창업, 도전과 실패 극복 과정서 값진 경험 얻는다!

초등학생에게 창업 교육이 꼭 필요할까? 이 질문에 이 성강 선생님(지행초)의 대답은 명확하다.

"국어, 수학, 영어도 아닌 '창업'을 왜 배워야 할까요? 창업 과정을 떠올려 보세요. 창업하려면 나의 흥미와 적성을 찾고, 다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재화·서비스와 연결 지어야 해요. 다음엔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판매하고, 어떤 비전으로 사업을 펼쳐나갈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다. 도전하고, 어려움과 실패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수학 문제를 푸는 것보다 값진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이 교훈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능력과 맞닿아 있어요. 바로 '기업가정신'입니다."

Q.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궁금해요.
A. 미래에는 '직업'의 의미가 지금과 많이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이 어른이 될 때면 수많은 직업을 새로 생기고 사라지며, 내가 새 직업을 만들 수도 있어요. 이에 대비해 '창업'을 경험해 본 사람과, 그 떨지 못한 사람은 확실히 차이가 날 거예요.

우리 저자들은 학교 교실에서 창업 교육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경험과 노하우를 많은 어린이가 함께 배웠으면 하는 바람으로 책을 썼어요.

Q. 초등 창업과 창업 교육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학교에서 창업 교육을 한다고 하면 많은 부모님이 의아해하세요. 아직 많은 부모님이 '창업'은 어린이가 배울 공부가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렇지만 창업을 통한 창의력과 상상력, 세상에 대한 관심은 시대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교과서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을 만나고 배울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가정신'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정리 박원배 기자 one2@econoi.com ▶2면으로 이어집니다.

꽃자와 시호의 우당탕탕 창업 이야기
경제금융교육연구회(한상희·이성강·이조은·정현민) 지음
박종호 그림

이성강 선생님이 생각한 '기업가정신'
기업가정신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특히 창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꼭 가져야 하는 태도나 마음가짐이에요. 가계를 열고, 회사를 세우는 경험을 하면 자연스럽게 체험하고 배울 수 있죠.

기업가정신은 크게 혁신, 리더십, 도전정신, 사고력, 협동, 책임감, 윤리, 창의력 등으로 구성됩니다.

Q. 어떤 책인지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A. 주인공 '시호'는 현대그룹을 만든 정주영 회장을 존경해요. 어느 날 마법 되지금통 '꽃자'를 만나 창업가의 꿈을 펼칩니다. 자연스럽게 창업을 향한 도전과 기업가정신을 배울 수 있는 학습동화죠. 어린이 독자에게 와달도록 다양한 사례와 저자 네 사람의 교육 경험을 담았어요.

4면 지금 세계는
영소가 미국 간 이유?
'사과'의 승부수!
7면 서병과 함께
알수록 가까운 나라,
말레이시아
13면 영화 시사회
극장판 '우당탕탕 은하안전단'
11월 시사회 이벤트 안내

#2-1. <꼭이지 e시사논술> 활동지

꼭 이지!

e 시사논술

1230 호

<활동지>

어린이 경제신문

#2-2. <꼭이지 e시사논술> 해설지

꼭 이지!

e 시사논술

1230 호

<해설지>

어린이 경제신문



“출퇴근길 지하철, 너무 붐비고 답답해!”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수많은 이용객으로 붐비는 서울의 한 지하철역 입구. 출퇴근 시간이면 더욱 사람이 늘어나, 지하철 열차를 타고 내리는 승객이 장사진을 이룬다.



지하철 문제의 '해법'?

아이고, 숨 막혀! 사람이 가득 찬 지하철을 타본 적 있나요? 지하철은 정해진 노선으로 다니고, 정해진 역에서만 서요, 즉, 최종 목적지가 다른 사람들도 지하철에서는 경로가 겹쳐서 함께 타고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 사람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에는 열차가 엄청 나게 붐벼요. 서울교통공사의 분석에 따르면, 지하철 열차 한 칸에 정원의 1.6배~1.9배까지 사람이 탈 정도. 당연히 승객들은 심한 피로감과 불편함을 느껴요.

시민의 밤, 지하철 지하철은 우리나라의 여러 대도시에 설치된 대중교통이에요. 철로로만 운행하는 곳은 제한되지만, 목적지가 지하철역이 있다면 신호등과 교통체증에 막히기 일쑤인 버스보다 훨씬 사고 빠르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퇴근길 수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며, 버스와 함께 '시민의 밤'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고는 하죠.

알나만 찾은 35명의 교장 선생님들

제주도 현경연 용수리. 바다가 보이는 골목길 한중간에 '이코노아이 알나만공화국'이 있다. 제주에서 활동하는 한익종 작가와 본사가 함께 만든 환경 교육장이다. '환경에 대해 알자, 바다로 나가서 쓰레기를 줍고, 쓰레기로 작품을 만들자'는 뜻을 이름에 담았다. 이 나라에 지난 2일, 특별한 손님들이 '입국'했다. 2023년 교(원)장 제5기 최고경영자과정 직무 연수'를 위해 경기도의 초등학교 교장 35명이 방문한 것. 이날 교육에서 한 작가는 환경의 중요성과 함께 어릴 때부터 재미있고 실질적인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교장 선생님들은 바닷가에서 주워온 온갖 쓰레기를 새활용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작품을 만들면서 다양한 환경보호 방법을 체험했다.



지난 2일, 알나만에서 연수 교육이 진행됐다. 경기도에서 온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한익종 작가의 설명을 듣고 있다.

■ 알나만 공화국 이코노아이마켓(economarket.com) → 알나만공화국

3면 <지하철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지하철은 우리나라의 여러 대도시에 설치된 대중교통이에요. 사람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에는 열차가 심각하게 붐벼요. 승객들은 심한 피로감과 불편함을 느끼기도 하죠.

1. 버스와 함께 '시민의 밤'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하는 지하철.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중요한 대중교통 수단이에요. 지하철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찾아봐요.



지하철의 단점?



2. 서울교통공사는 내년 1월, 붐비는 출퇴근 시간에 운행되는 열차에 의자를 없앤 열차 칸을 운영할 계획이래요. 의자를 없앤 열차 칸에 대한 내 생각을 말해보세요.



3면 <지하철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지하철은 우리나라의 여러 대도시에 설치된 대중교통이에요. 사람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에는 열차가 심각하게 붐벼요. 승객들은 심한 피로감과 불편함을 느끼기도 하죠.

1. 버스와 함께 '시민의 밤'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하는 지하철.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중요한 대중교통 수단이에요. 지하철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찾아봐요.



(예) 한번에 많은 사람을 태울 수 있어요. 지하로 가로질러 다녀 속도가 빨라요.



지하철의 단점?

(예) 정해진 길로만 다녀서 멀리 돌아가게 될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이 몰리는 구조라 쉽게 붐벼요.

2. 서울교통공사는 내년 1월, 붐비는 출퇴근 시간에 운행되는 열차에 의자를 없앤 열차 칸을 운영할 계획이래요. 의자를 없앤 열차 칸에 대한 내 생각을 말해보세요.





알수록 가까운 나라, 말레이시아

안녕하세요? 저는 서승현 선생님이에요. 줄여서 '서쌤'이라고 불러주세요. 말레이시아에 있는 한국국제학교에서 4년동안 학생을 가르쳤답니다. <어린이 경제신문> 어린이 독자 여러분은 '말레이시아'라는 나라를 잘 아시나요? 서쌤이 말레이시아에 살 때, '플레밍(Fleming)'이라는 여러분 또래의 이웃이 있었죠. 어느 날, 이 친구가 "외국 사람들은 인도네시아나 싱가포르는 잘 아는데, 바로 옆에 있는 말레이시아는 잘 몰라요."라면서 아쉬워한 일이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저도 말레이시아를 직접 가기 전까지는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 어떤 말을 사용하는지 잘 몰랐어요. 동남아시아에 있는 나라 중 하나라고만 생각했죠. 그럴지만 직접 경험해 본 말레이시아는 엿진 매력이 넘치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서쌤이 직접 보고, 듣고, 겪은 말레이시아를 알려주려고 해요. 그럼, 지금부터 함께 여행을 떠나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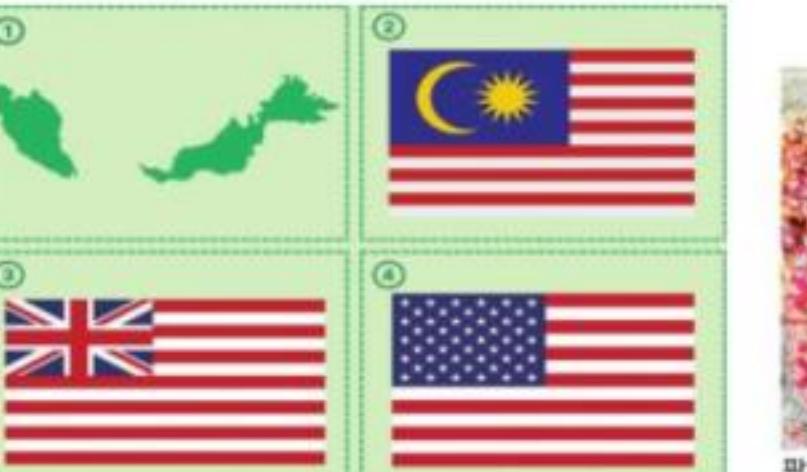


말레이시아는 바다를 중심으로 크게 둘로 나뉜다. 동부 말레이시아의 카나발루 산에서 찍은 사진. 이곳은 풍요로운 자연으로 유명하다.

#1. 말레이시아, 어디에 살까요?

세계 지도를 펼쳐보세요. 대한민국에서 서남쪽을 향해 천천히 시선을 옮기다보면 어렵지 않게 말레이시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바다를 사이에 두고 크게 서부 말레이시아(말레이반도 지역)와 동부 말레이시아(보르네오섬 지역)로 나뉘어 있어요. 서부 말레이시아는 북쪽으로는 태국, 남쪽으로는 싱가포르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동부 말레이시아는 브루나이, 인도네시아와 국경을 접했죠.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6시간 반 정도 날아가면 말레이시아의 국제공항인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KLIA, Kuala Lumpur International Airport)에 도착합니다. '쿠알라룸푸르'



말레이시아의 깃발은 미국과 비슷하다. 순서대로 ①말레이시아 깃발, ②동인도회사 깃발, ③미국 깃발.

는 말레이시아의 수도로 '흙탕물이 합류하는 곳, 검은 강'이라는 뜻인데요. '곰방' 강과 '클랑' 강이 합쳐지는 지점에 도시를 만든 것이 이름의 유래라고 해요. 실제로 쿠알라룸푸르 한가운데는 쿠알라룸푸르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2. 미국과 말레이시아, 국기가 닮았는데?

말레이시아의 국기를 보면 미국의 성조기가 떠올라요. 빨갛고 하얀 가로줄과 왼쪽 위의 파란 바탕이 특히 비슷합니다.

두 국가가 비슷한 이유는 역사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영국의 '동인도회사' 깃발의 영향이에요. 동인도회사는 17세기, 영국이 세계 최강국으로 위세를 떨칠 때 동양 무역을 독점하기 위해 만든 회사입니다. 식민지 경영에 앞장서기도 했죠. 영국의 식민지였던 말레이시아와 미국이 국기를 만들 때, 이 깃발의 영향으로 결과적으로 비슷한 모양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물론, 다른 점도 있어요. 말레이시아 국기에서 흰색과 빨간색의 줄무늬 개수는 14개. 나라를 구성하는 13개의 주와 말레이시아 연방정부를 의미해요. 노란 초승달은 말레이시아의 국교 이슬

마

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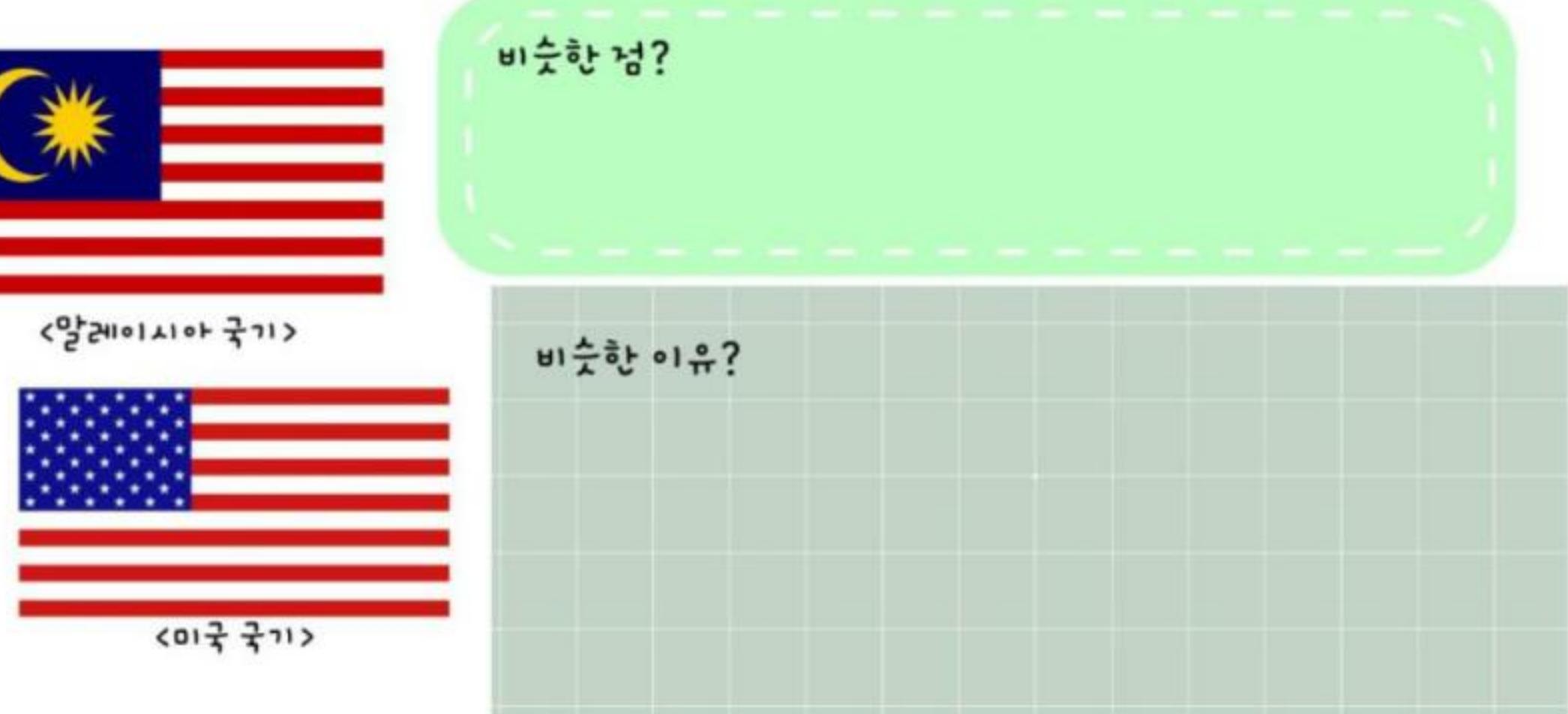


팜유는 국내외 식품에 많이 쓰이는 기름이다. 순서대로 ①팜유를 끓여는 팜야자(มะ야), ②와 ③은 국내 마트에서 만날 수 있는 말레이시아에서 온 제품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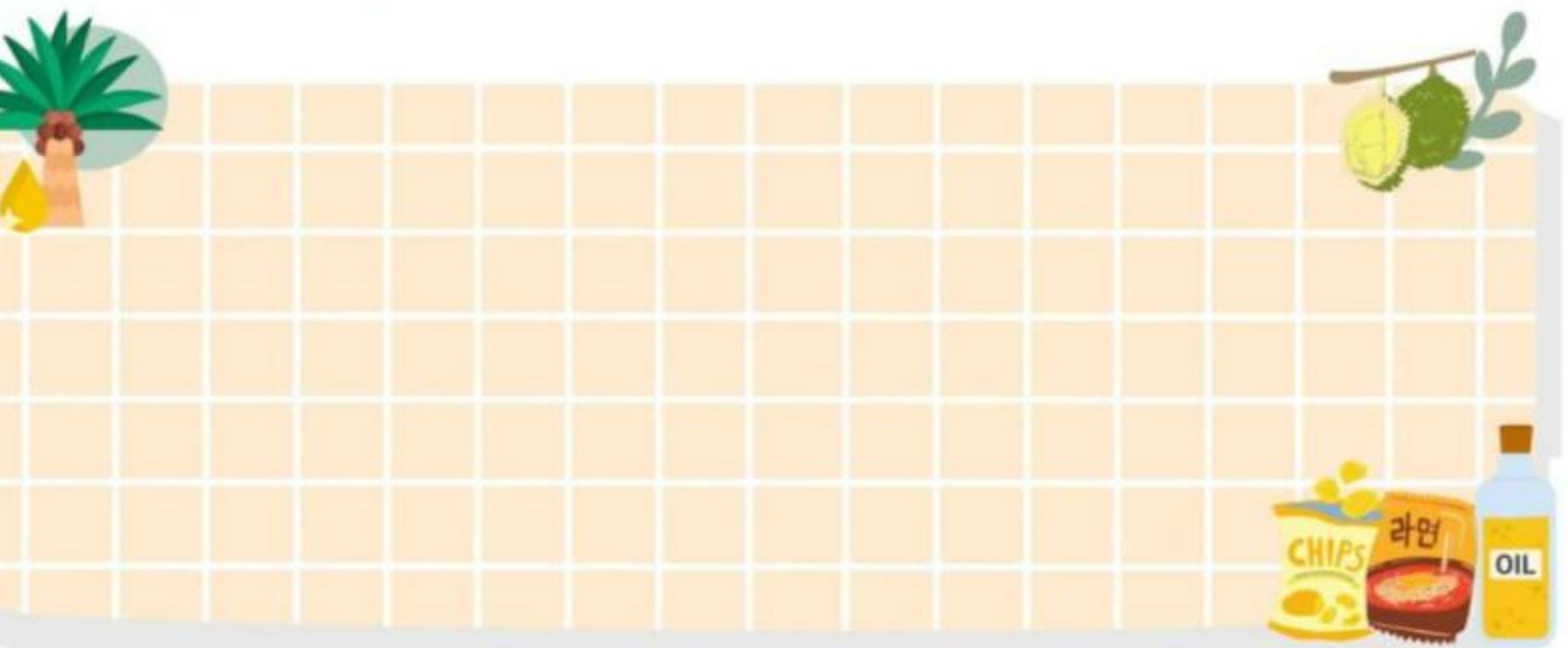
7면 <알수록 가까운 나라, 말레이시아>

대한민국에서 서남쪽에 위치한 말레이시아. 바다를 두고 크게 서부 말레이시아(말레이반도 지역)와 동부 말레이시아(보르네오섬 지역)로 나뉘어 있어요.

1. 미국과 말레이시아의 국기는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 이유는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사를 읽고 국기가 비슷한 이유를 말해 보세요. 그리고 다른 점도 알아보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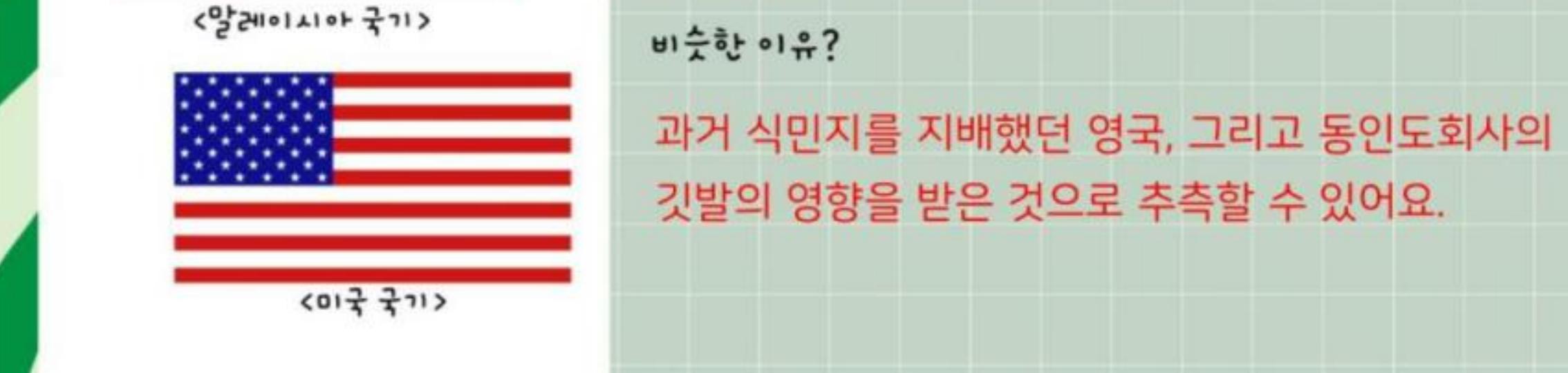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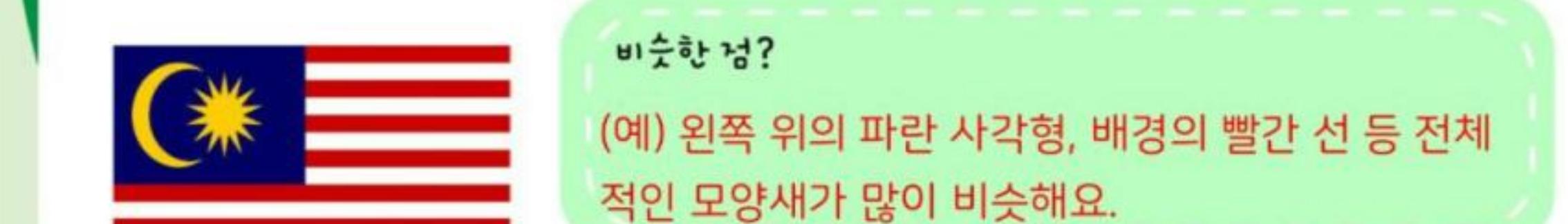
2. 우리가 좋아하는 과자나 라면의 원산지에는 '팜유(말레이시아산)'라고 적힌 경우가 많아요. 내 주변 '말레이시아산'을 찾고, 포장지 뒷면 원산지를 잘라 붙여 보아요.



7면 <알수록 가까운 나라, 말레이시아>

대한민국에서 서남쪽에 위치한 말레이시아. 바다를 두고 크게 서부 말레이시아(말레이반도 지역)와 동부 말레이시아(보르네오섬 지역)로 나뉘어 있어요.

1. 미국과 말레이시아의 국기는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 이유는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사를 읽고 국기가 비슷한 이유를 말해 보세요. 그리고 다른 점도 알아보아요.



2. 우리가 좋아하는 과자나 라면의 원산지에는 '팜유(말레이시아산)'라고 적힌 경우가 많아요. 내 주변 '말레이시아산'을 찾고, 포장지 뒷면 원산지를 잘라 붙여 보아요.





'해충'에게도 배울점이 있다'



지난달부터 전국 각지에서 빈대 관련 신고가 급격히 늘고 있다.

#1. 빈대

사람과 동물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 곤충이에요. 영어 명칭은 '베드버그(Bedbug)'. 이름처럼 침대나 집 안 가구 주변에 숨어서 살아요. 몸길이는 5~10mm로 작아서 눈에 잘 띄지 않아요. 활동 시간대도 주로 어두운 새벽. 잠든 사람을 깨물어 피를 빨아 배를 채워요.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 자취를 감췄다가, 얼마 전부터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사에서 찾아봐요.

르는 것. 빈대는 수명이 최대 1년 반으로 상당히 길어요. 더구나 기존 살충제에는 내성이 있어 잘 죽지도 않아요. 따라서 각 가정에서 일일이 퇴치하는 것은 무리. 이렇게 없애기 힘든 해충이다 보니, 빈대 포비아(Phobia, 공포증)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정부는 지난 3일(금), 빈대 학동 대책본부를 설치해 해결에 나섰어요.

#2. 빈대-피난민 배운 '끈기'



고(故) 정주영 회장의 유품.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이 길어지며 뉴스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예요. 그런데, 둘 사이에는 미세한 의미 차이가 있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국어사전에 따르면, '피난(避難)'은 '재난을 피하다'라는 뜻이에요. 이때의 재난이란 지진, 홍수, 화재 등을 말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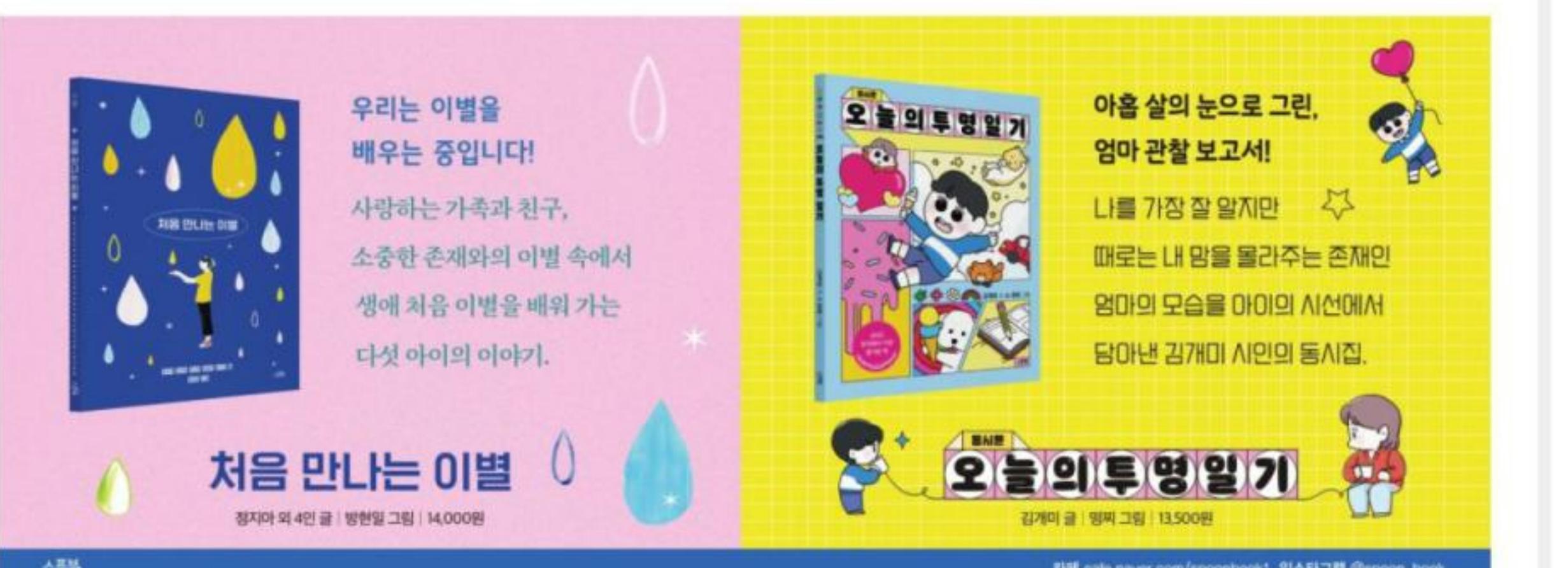
한편, '피란(避亂)'을 찾아보면 '난리를 피하다'라고 설명해요. 여기서 말하는 난리란, 전쟁과 같은 큰 싸움을 가리켜요. '임진왜란'처럼 '란'으로 끝나는 단어와 연결되어 이해해도 좋아요.

그렇지만, 전쟁도 재난 아닌가요? 맞아요. 따라서 전쟁에는 '피난민'과 '피란민' 두 표현을 모두 쓸 수 있어요. 반면, '자진 피란민'은 잘못된 표현. 자신이 전쟁과 같은 큰 싸움은 아니니까요. 즉, 피난은 피란보다 조금 더 넓은 개념이에요. 이해하기 어렵다면 이렇게 정리해도 좋아요.

산불이나 태풍, 전염병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 몸을 피하는 것은 '피난'. 전쟁 등 사람이 일으킨 난리로 인해 거처를 옮기는 것은 '피란'!

가장 확실한 박멸 방법은 전문 방역 업체를 부

김정우 기자 news@econolu.com



스폰서

10면 <해충에게도 배울점이 있다>

전국 각지에서 사람과 동물의 피를 빨아 먹는 빈대 관련 신고가 급격히 늘고 있어요. 빈대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과 피해, 빈대의 특징, 정부의 대처 방안 등을 알아보아요.

1. 빈대는 영어로 '베드버그(Bedbug)'라고 한대요. 왜 이런 이름이 붙었을까요? 영어 뜻을 풀어 보면서 추리해 봐요!



2. 빈대는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 자취를 감추었다가, 얼마 전부터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사에서 찾아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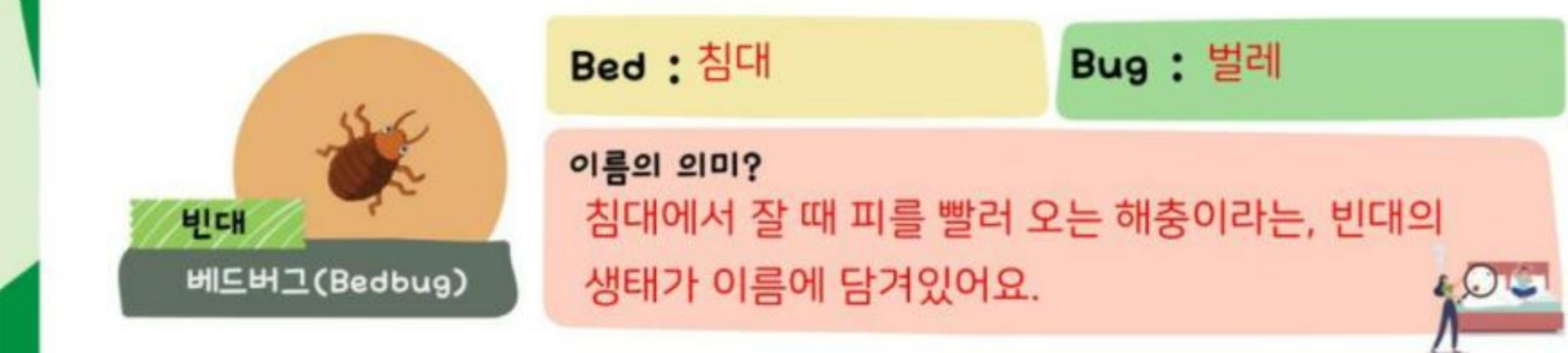
3. 현대그룹의 창업자, 고(故) 정주영 회장은 온갖 방법을 써도 결국 달라붙는 빈대에게서 '끈기'를 배웠어요. 여러 동·식물 중 하나를 선택해 이름을 적어보고, 이들의 생활이나 행동에서 배울 점을 찾아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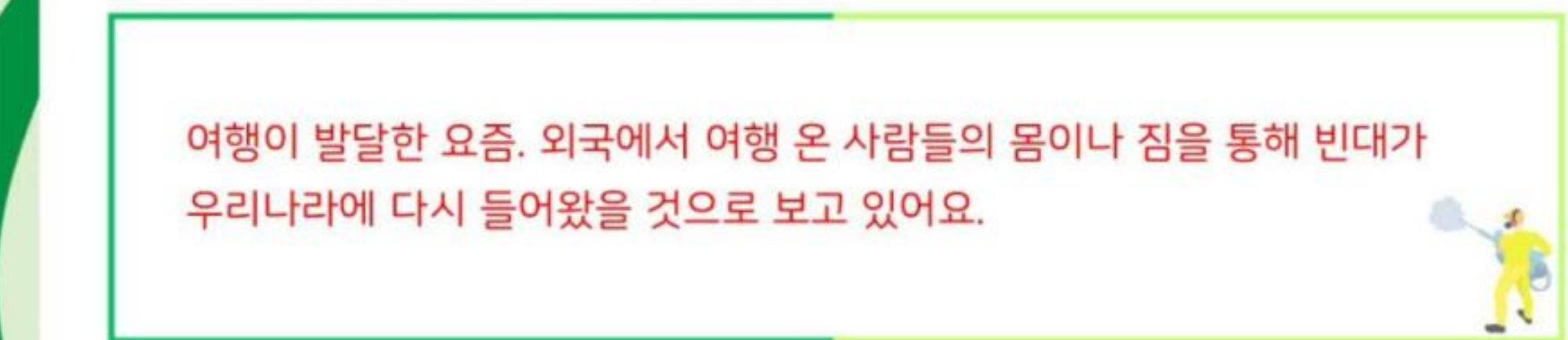
10면 <해충에게도 배울점이 있다>

전국 각지에서 사람과 동물의 피를 빨아 먹는 빈대 관련 신고가 급격히 늘고 있어요. 빈대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과 피해, 빈대의 특징, 정부의 대처 방안 등을 알아보아요.

1. 빈대는 영어로 '베드버그(Bedbug)'라고 한대요. 왜 이런 이름이 붙었을까요? 영어 뜻을 풀어 보면서 추리해 봐요!



2. 빈대는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 자취를 감추었다가, 얼마 전부터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사에서 찾아봐요.



3. 현대그룹의 창업자, 고(故) 정주영 회장은 온갖 방법을 써도 결국 달라붙는 빈대에게서 '끈기'를 배웠어요. 여러 동·식물 중 하나를 선택해 이름을 적어보고, 이들의 생활이나 행동에서 배울 점을 찾아봐요!



아동권리선언, 아동권리협약, 세계 어린이의 날까지 나의 권리, 무엇이 있을까?

당연? 아니에요!

"어린이에게 폭력을 써서는 안 돼요", "어린이의 의견을 존중해야 해요". 2023년 현재, 우리 사회의 '상식'으로 받아들여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 주인공이 될 어린이, 바로 여러분의 수많은 권리 중 일부로, 그렇지만 100여 년 전만 해도, 이러한 권리는 '당연'하지 않았어요. 어린이의 권리는 많은 고민과 논의 끝에 정해진 소중한 결실입니다. 11월 20일 '세계 어린이의 날'을 맞아, 아동권리의 역사와 내용을 살펴봐요.

옛날의 어린이는?

"물이 작으니 좀은 곳에 들어갈 수 있어 편리하군. '덜 자라 힘이 약한 어른'이니 쓴 임금을 줘도 되겠네!" 산업혁명이 한창이던 1800년대 중반~1900년대 초반, 많은 나라가 어린이를 이렇게 생각했어요. 영국에선 심지어 네 살부터 일을 시켰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뒤 '변화 시작'

1945년 9월 2일, 세계를 휩쓴 제2차 세계대전이 끝을 맞이합니다. 2번에 걸친 비극적인 대 전쟁은 자연스레 인권, 사람이 가져야 할 마땅한 권리에 관한 논의와 관심으로 이어졌어요. 어린이가 가져야 할 마땅한 권리, 아동 인권에 대한 논의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첫걸음, 유엔 아동권리선언
유엔(UN, 국제연합)이 창설된 지 약 1년 뒤인 1946년 12월 11일, 어린이와 청소년을 돋는 국제기구 유니세프(UNICEF, 유엔아동기금)가 탄생했어요. 이들의 활동을 계기로 어린이의 권리가 중요한 주제로 떠오릅니다. 1924년 국제연맹(유엔과 비슷한 국제기구, 유엔의 일거름이 됐어요)의 '아동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의 뒤를 이어, 1959년 11월 20일 유엔총회가 '유엔 아동권리선언'을 채택했어요.

10가지 원칙, 바탕이 되다
모든 어린이는 차별 없이 선언문에 적힌 모든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다', '어린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먼저 보호받아야 한다'...'. '유엔 아동권리선언'은 10가지 원칙을 통해 구체적인 어린이(아동)의 권리를 정했어요. 이는 법적인 구속력은 있지만, 훗날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방향성을 정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만장일치, 유엔 아동권리협약
탄탄한 기반이 생겼으니, 다음은 크고 굳건한 건물을 세울 차례입니다. 단순한 선언을 넘어, 법적인 힘이 있는 '국제적인 약속'이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어요. 바로 '유엔 아동권리협약'입니다. 이 협약을 통해, 어린이는 보호 대상을 넘어 존중받아야 할 '인권의 주체'로 인정받았어요.

어떤 내용이 실렸나요?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생존권', 해로운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보호권', 어린이가 잠재 능력을 키우려면 필요한 '발달권', 국가와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권'. 이 내 가지 핵심 권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약속, 54가지 조항이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이에요. 각 조항과 의미가 궁금하다면, 오픈 카드 뉴스 #8을 참고해 보세요!

박현민 기자 news@econo.com

자식 쌓고 체험하기, 이곳 추천!
① 한국유니세프 '자료실' (<https://www.unicef.or.kr>)
▶ 소개: "하는일 → 자료실" 메뉴에서 '아동권리협약', 또는 '아동권리'를 검색해 보세요. 자료를 받아보려면 회원가입 과정이 필요하지만, 아동권리협약의 각 조항 속 어린이의 권리를 쉽게 해설한 삽화와 보드게임, 포스터 등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자료'를 무료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 아린이의 권리를 처음으로 배우고, 체험으로 즐겁게 알고 싶다면 이 사이트를 추천합니다.

② 한국방정학재단 '어린이선언' (<https://children365.or.kr>)
▶ 소개: 'ON전람회 → 어린이 선언' 메뉴에서 어린이 권리 위한 국내외의 역사적 노력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어요. 특히 '국내 어린이선언'과 '해외 어린이선언' 코너는 각 선언, 협약의 내용을 정리한 한글 문서를 간편히 받을 수 있어 심화 학습에 유용합니다.
▶ 어린이 권리에 관한 역사와 선언의 내용을 알고 싶다면 이 사이트를 추천합니다.

14면 <나의 권리, 무엇이 있을까?>

11월 20일 '세계 어린이의 날'을 맞이해, 유엔에서 채택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역사와 내용을 살펴봐요. 어린이는 보호 대상을 넘어 존중받아야 할 '인권의 주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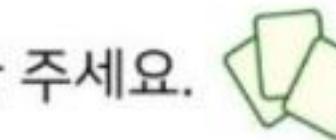
해설지 <참고 자료>로 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을 살펴봐요. 유네스코에서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포스터로, 아동권리협약을 통해 제시된 어린이의 다양한 권리를 알 수 있습니다.

1. <참고 자료>의 포스터 앞면(권리 조항별 아이콘 및 이름)과 뒷면(각 조항에 관한 설명)을 알맞게 연결하는 게임을 하면서 아동권리의 종류와 의미를 배워 봅시다.

① 포스터 앞면과 뒷면을 각각 인쇄한 뒤, 낱장으로 오려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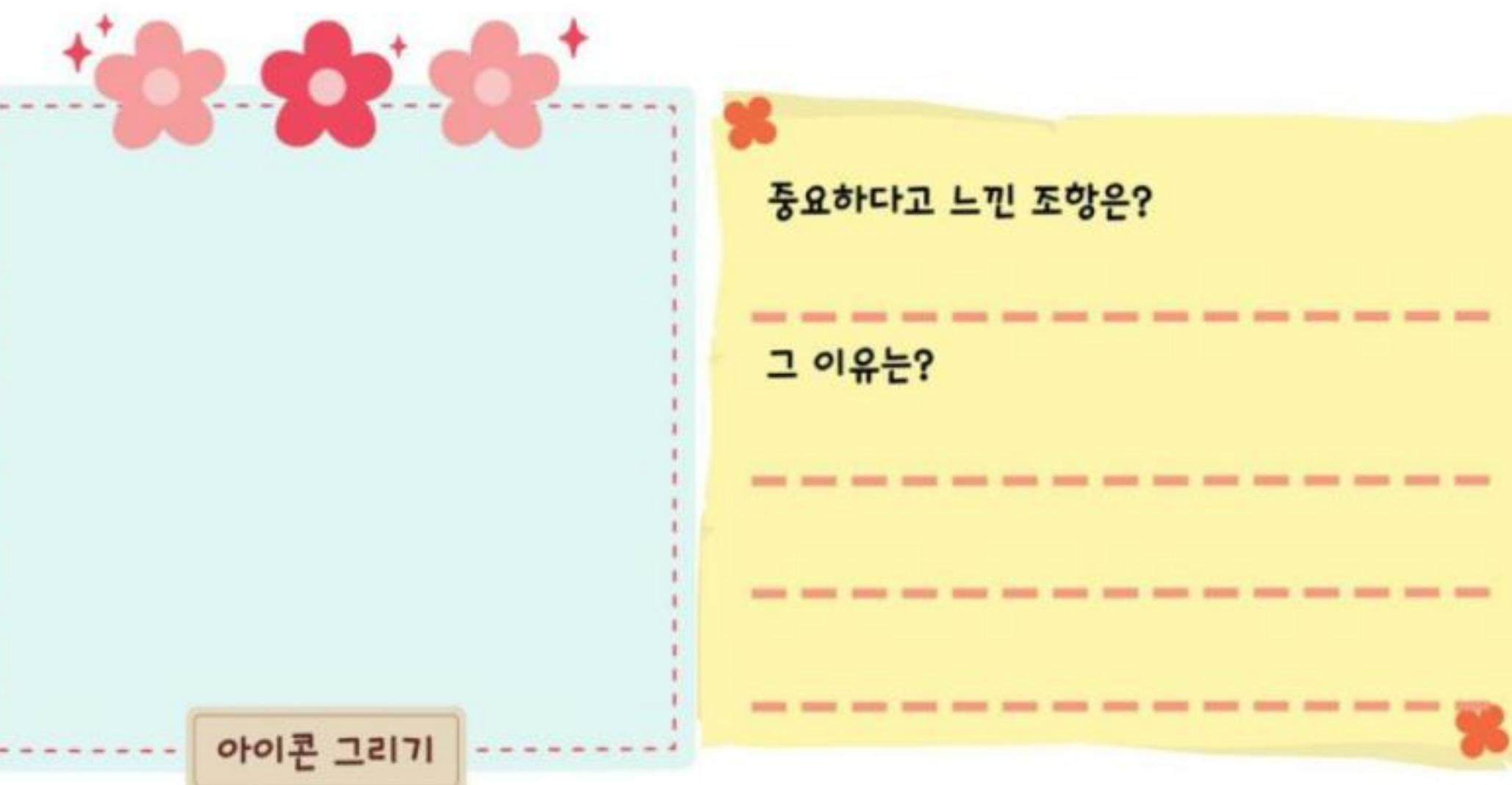


② 오린 카드를 앞장과 뒷장끼리 모으고, 뒷면이 위로 오게 바닥에 펼쳐 놓아 주세요.



③ 참가자들은 순서대로 앞장 뭉치와 뒷장 뭉치를 각각 한 장씩 뒤집어요. 아이콘(앞장)과 그 뜻(뒷장)을 알맞게 맞추면 카드를 가져옵니다. 번호를 힌트로 쓸 수 있어요.

2. 해설지 <참고 자료>로 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을 살펴봐요. 여러 가지 조항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느낀 조항을 골라 내용을 쓰고, 아이콘으로 요약해서 그려봐요. 그리고 왜 중요하다고 생각했는지 이유도 알려주세요.



꼭! 이지 NIE

어린이 경제신문

1230호

14면 <나의 권리, 무엇이 있을까?>

11월 20일 '세계 어린이의 날'을 맞이해, 유엔에서 채택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역사와 내용을 살펴봐요. 어린이는 보호 대상을 넘어 존중받아야 할 '인권의 주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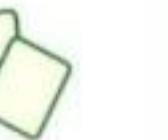
해설지 <참고 자료>로 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을 살펴봐요. 유네스코에서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포스터로, 아동권리협약을 통해 제시된 어린이의 다양한 권리를 알 수 있습니다.

1. <참고 자료>의 포스터 앞면(권리 조항별 아이콘 및 이름)과 뒷면(각 조항에 관한 설명)을 알맞게 연결하는 게임을 하면서 아동권리의 종류와 의미를 배워 봅시다.

① 포스터 앞면과 뒷면을 각각 인쇄한 뒤, 낱장으로 오려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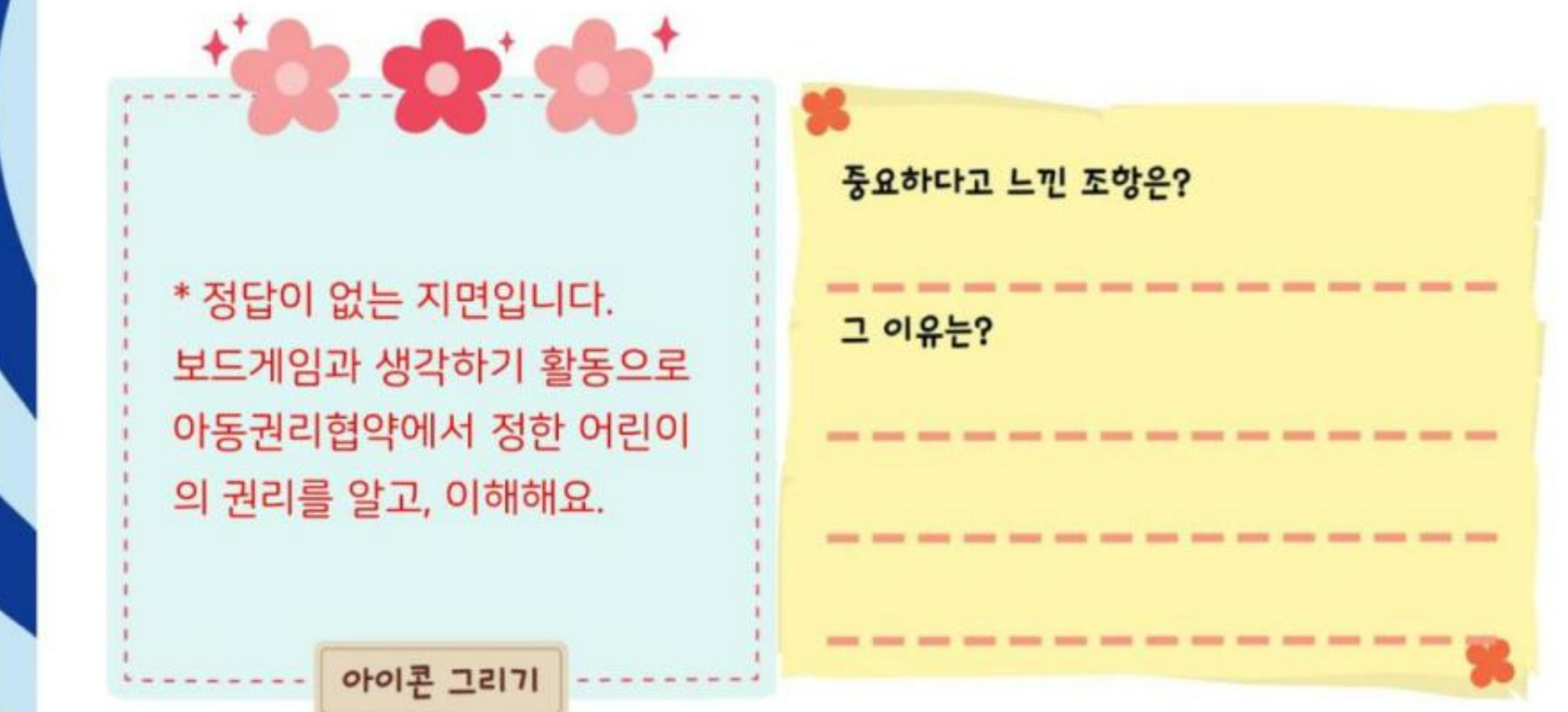
② 오린 카드를 앞장과 뒷장끼리 모으고, 뒷면이 위로 오게 바닥에 펼쳐 놓아 주세요.



③ 참가자들은 순서대로 앞장 뭉치와 뒷장 뭉치를 각각 한 장씩 뒤집어요. 아이콘(앞장)과 그 뜻(뒷장)을 알맞게 맞추면 카드를 가져옵니다. 번호를 힌트로 쓸 수 있어요.



2. 해설지 <참고 자료>로 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을 살펴봐요. 여러 가지 조항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느낀 조항을 골라 내용을 쓰고, 아이콘으로 요약해서 그려봐요. 그리고 왜 중요하다고 생각했는지 이유도 알려주세요.



꼭! 이지 NIE

어린이 경제신문

1230호



월급이 많이 오르면 '무조건' 좋을까

물가 상승 체험한 어린이들의 반응은?

선생님은 교실에서 경제 체험활동을 하고 있어요. 우리 반은 사이킹제국(경제금융교실 나라 이름)이라는 나라가 되었죠.

반 학생들은 국민이 되어 열심히 일하고, 가상화폐 월급도 받아요. 화폐 단위는 '하동'.

국민은 이 가상화폐로 물건을 사고, 저축하고, 투자도 하면서 경제와 사회를 배우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예요. 그런데, 최근 저는 국민에게 많은 원성을 들고 있어요.



#3.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 선생님은 '월급을 올리면 안 된다'라고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월급은 내가 일한 대가입니다. 열심히 한 만큼 월급이 올라야 보람도 느끼고, 삶의 질도 좋아지고, 가족도 즐겁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다면, 모든 국민이 갑자기 월급을 2배로 받는 상황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정리해 볼까요?

핵심은, 시장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공급량(과자의 공급량)은 늘지 않았다는 부분입니다. 국민이 쓸 수 있는 돈만 늘어났죠. 시장 전체로 보면 공급이 늘지 않고 수요만 늘어났으니, 상품이 거래되는 가격이 급격하게 비싸지는 거예요. 실제 상황이라면, 물가 상승에 국민의 삶이 끝 어려워지겠죠.

국민의 수입이 늘지 않는데 물가만 오른다면? 같은 돈을 벌어도 살 수 있는 물건이 줄어드니, 국민이 기난해지고 삶의 질도 떨어지는 현상이 벌어질 거예요. 상품이 제대로 팔리지 않으니, 기업도 매출이 줄어요. 경기가 얼어붙으니 이 또한 문제입니다.

정리하면, 국민의 수입과 물가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요. 국가 전체의 경제가 올바르게 성장하면서 이들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뤄야만 해요. 과연 우리 국민이 잘 이해해 줄 수 있을까요?

하동진 어니스트(주안북초 교사)

#1. 물가, 너무 올랐어요!

물론, 당장은 기분이 좋을 거예요. 여러분이 용돈을 지금 받는 금액의 2배씩 받는다고 상상해 봐요. 여윳돈으로 하고 싶은 일이 떠오르고, 행복하나에 40하동이 말이 돼요? "먹고살기 너무 힘드네!"

예전보다 사이킹제국의 물가가 많이 올라서 국민의 항의가 이어졌어요. 저는 물가가 왜 오르는지 간단하게 설명한 뒤, "물가만 오른 게 아니라 월급도 올랐잖아 애들아~" 라며 다독였죠. 그랬더니 재미있는 반응이 나왔어요.

"아니 선생님! 월급은 쥐꼬리만큼 올랐잖아요!"
"월급 좀 더 짹짜 올려주세요! 2배는 돼야죠!"

#2. 모두가 월급을 2배씩 받는다면?

"그래? 그럼, 정말로 모두 월급을 2배씩 올려버릴까?"

좋아라 입을 모아 그려하고 대답하는 국민들. <어린이 경제신문> 독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하겠나요? 아마 대부분은 비슷하게 대답할 거예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한 나라의 모든 국민이 월급이 많이 오른다면, 다들 돈 걱정 없이 행복해질까요?

매점에서 벌어지는 일?

① 월급을 2배나 받았어요. 신이 난 몇몇 국민이 매점에서 과자를 전뜩 사기 시작했어요. 곧 평소에는 인기가 없던 과자마저 다 팔려버립니다. 나머지 친구들은 과자를 살 수가 없어요. 비슷한 상황이 며칠간 반복됩니다.

② 한번, 과자가 매일 불티나게 팔리는 것을 안 매점 주인, 과자 가격을 조금 올립니다. 그래도 지갑이 두둑한 국민들은 신나서 과자를 사 먹어요.

③ '아? 가격을 좀 올려도 다 팔리네? 과자 가격을 더 올려야지!'하는 매점 주인. 과자 가격은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어느덧 월급 인상 전 가격의 2배에 다다릅니다.

④ "선생님, 물가가 너무 올랐어요, 과잣값이 어떻게 2배가 돼요? 월급 더 올려주세요!" 국민의 목소리예요. 어디서 많이 들었던 말이죠?

물가와 임금에 관한 대표적인 기관은?

최저임금위원회: 국민이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매년 최저임금을 정해요.
한국은행: 금리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물가를 안정시키려 노력해요.

5면 <물가상승 체험한 어린이들의 반응은?>

학생들은 경제 금융교실 사이킹제국의 국민이 되어 경제와 사회를 배우고 있어요. 어느 날, 물가가 많이 올라서 국민의 항의가 이어졌다고 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함께 살펴보아요.

1. 나의 일상에서 물가 상승을 체험한 경험을 이야기해 보세요. 물가가 어떻게 올랐는지, 그 영향으로 무엇을 느꼈는지 표현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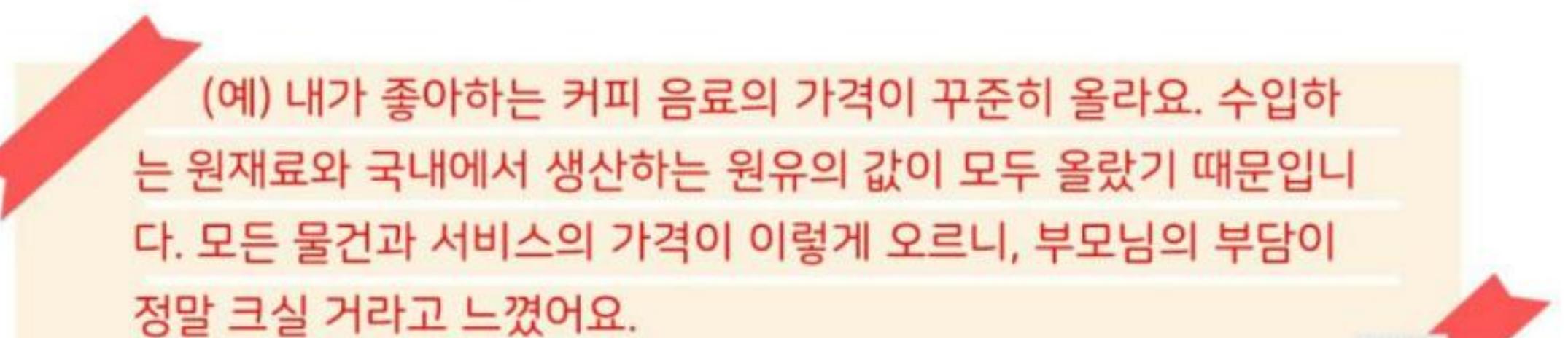
2. 물가가 오른다고 월급을 무조건 올리기만 하면, 물가는 더 치솟을 거예요. 그렇다고 물가가 오르는데 월급은 계속 그대로 유지된다면 사람들의 생활이 어려워지죠. '물가가 오를 때 월급 인상'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고려하여 토론을 진행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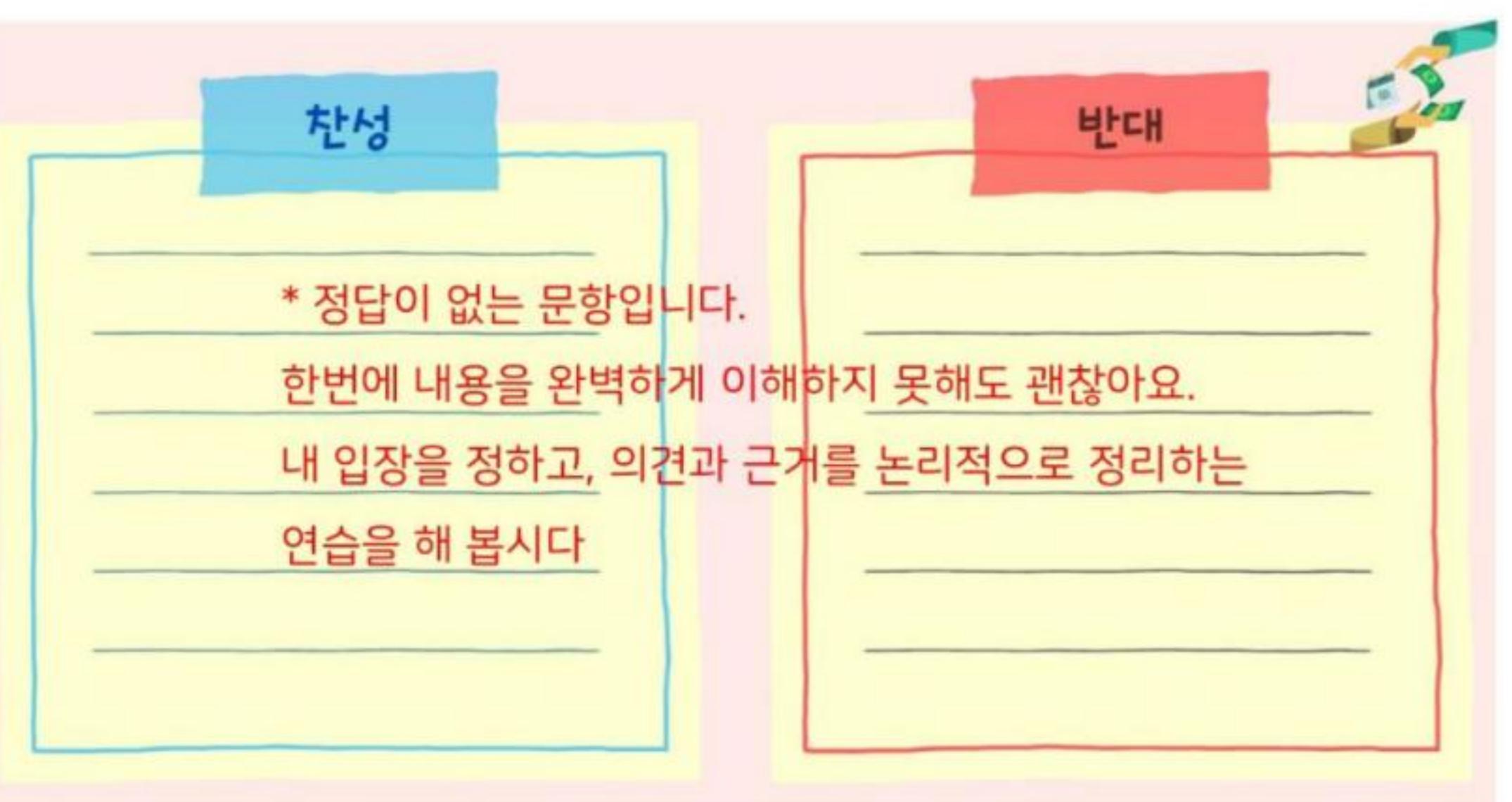
5면 <물가상승 체험한 어린이들의 반응은?>

학생들은 경제 금융교실 사이킹제국의 국민이 되어 경제와 사회를 배우고 있어요. 어느 날, 물가가 많이 올라서 국민의 항의가 이어졌다고 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함께 살펴보아요.

1. 나의 일상에서 물가 상승을 체험한 경험을 이야기해 보세요. 물가가 어떻게 올랐는지, 그 영향으로 무엇을 느꼈는지 표현해 봅시다.



2. 물가가 오른다고 월급을 무조건 올리기만 하면, 물가는 더 치솟을 거예요. 그렇다고 물가가 오르는데 월급은 계속 그대로 유지된다면 사람들의 생활이 어려워지죠. '물가가 오를 때 월급 인상'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고려하여 토론을 진행해 보세요.



아동권리선언, 아동권리협약, 세계 어린이의 날까지 나의 권리, 무엇이 있을까?

당연? 아니에요!

"어린이에게 폭력을 써서는 안 돼요", "어린이의 의견을 존중해야 해요". 2023년 현재, 우리 사회의 '상식'으로 받아들여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 주인공이 될 어린이, 바로 여러분의 수많은 권리 중 일부죠. 그렇지만 100여 년 전만 해도, 이러한 권리는 '당연'하지 않았어요. 어린이의 권리는 많은 고민과 논의 끝에 정해진 소중한 결실입니다. 11월 20일 '세계 어린이의 날'을 맞아, 아동권리의 역사와 내용을 살펴봐요.

옛날의 어린이는?

"물이 작으니 좀은 곳에 들어갈 수 있어 편리하군. '덜 자라 힘이 약한 어른'이니 씬 임금을 줘도 되겠네!" 산업혁명이 한창이던 1800년대 중반~1900년대 초반, 많은 나라가 어린이를 이렇게 생각했어요. 영국에선 심지어 네 살부터 일을 시켰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뒤 '변화 시작'

1945년 9월 2일, 세계를 휩쓴 제2차 세계대전이 끝을 맞이합니다. 2번에 걸친 비극적인 대 전쟁은 자연스레 인권, 사람이 가져야 할 마땅한 권리에 관한 논의와 관심으로 이어졌어요. 어린이가 가져야 할 마땅한 권리, 아동 인권에 대한 논의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첫걸음, 유엔 아동권리선언
유엔(UN, 국제연합)이 창설된 지 약 1년 뒤인 1946년 12월 11일, 어린이와 청소년을 돋는 국제기구 유니세프(UNICEF, 유엔아동기금)가 탄생했어요. 이들의 활동을 계기로 어린이의 권리가 중요한 주제로 떠오릅니다. 1924년 국제연맹(유엔과 비슷한 국제기구, 유엔의 일거름이 됐어요)의 '아동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의 뒤를 이어, 1959년 11월 20일 유엔총회가 '유엔 아동권리선언'을 채택했어요.

10가지 원칙, 차별이 되다
모든 어린이는 차별 없이 선언문에 적힌 모든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다", '어린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먼저 보호받아야 한다'". '유엔 아동권리선언'은 10가지 원칙을 통해 구체적인 어린이(아동)의 권리를 정했어요. 이는 법적인 구속력은 있지만, 훗날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방향성을 정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만장일치, 유엔 아동권리협약
탄탄한 기반이 생겼으니, 다음은 크고 굳건한 건물을 세울 차례입니다. 단순한 선언을 넘어, 법적인 힘이 있는 '국제적인 약속'이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어요. 이 협약을 통해, 어린이는 보호 대상을 넘어서 존중받아야 할 '인권의 주체'로 인정받았어요.

어떤 내용이 실렸나요?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생존권', 해로운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보호권', 어린이가 잠재 능력을 기우려면 필요한 '발달권', 국가와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권'. 이 내 가지 핵심 권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약속, 54가지 조항이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이에요. 각 조항과 의미가 궁금하다면, 오픈 퍼 카드 뉴스 #8을 참고해 보세요!

박현일 기자 news@econo.com

자식 쌓고 체험하기, 이곳 추천!

① 한국유니세프 '자료실' (<https://www.unicef.or.kr>)
▶ 소개: "하는일 → 자료실" 메뉴에서 '아동권리협약', 또는 '아동권리'를 검색해 보세요. 자료를 받아보려면 회원가입 과정이 필요하지만, 아동권리협약의 각 조항 속 어린이의 권리를 쉽게 해설한 삽화와 보드게임, 포스터 등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자료'를 무료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 아린이의 권리를 처음으로 배우고, 체험으로 즐겁게 알고 싶다면 이 사이트를 추천합니다.

② 한국방정환재단 '어린이선언' (<https://children365.or.kr>)
▶ 소개: 'ON전람회 → 어린이 선언' 메뉴에서 어린이 권리와 위한 국내외의 역사적 노력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어요. 특히 '국내 어린이선언'과 '해외 어린이선언' 코너는 각 선언, 협약의 내용을 정리한 한글 문서를 간편히 받을 수 있어 심화 학습에 유용합니다.
▶ 어린이 권리에 관한 역사와 선언의 내용을 알고 싶다면 이 사이트를 추천합니다.

14면 <나의 권리, 무엇이 있을까?>

11월 20일 '세계 어린이의 날'을 맞아, 유엔에서 채택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역사와 내용을 살펴봐요. 어린이는 보호 대상을 넘어 존중받아야 할 '인권의 주체'입니다.

1. 어린이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내가 누리고 있는 4대 권리는 어떤 것이 있는지 기사를 통해 살펴보고, 내용을 요약해 보아요.

- 1 생존권
- 2 보호권
- 3 발달권
- 4 참여권

2. 권리가 남용되지 하는 것이지만, 남용하면 역효과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아동권리협약에 제시된 권리 가운데, 남용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나요?



3. 권리가 남용되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14면 <나의 권리, 무엇이 있을까?>

11월 20일 '세계 어린이의 날'을 맞아, 유엔에서 채택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역사와 내용을 살펴봐요. 어린이는 보호 대상을 넘어 존중받아야 할 '인권의 주체'입니다.

1. 어린이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내가 누리고 있는 4대 권리는 어떤 것이 있는지 기사를 통해 살펴보고, 내용을 요약해 보아요.

- 1 생존권 **(예)** 어린이 성장에 필수적이며, 유엔이 만든 '아동의 4대 권리' 중 하나. 어린이가 기본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권리예요.
- 2 보호권 **어린이가 해로운 것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 3 발달권 **교육, 여가, 놀이 등을 통해 잘 발달할 수 있는 권리예요.**
- 4 참여권 **어린이가 자기 일에 대한 권리를 자유롭게 주장하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2. 권리가 남용되지 하는 것이지만, 남용하면 역효과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아동권리협약에 제시된 권리 가운데, 남용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나요?



(예) 예를 들어, 아동을 부당하게 대우해선 안 된다는 '2번, 차별 금지' 등은 문제 될 여지가 적어요. 하지만 '13번, 표현의 자유'는 어떨까요. 내겐 표현의 자유가 있다! 면서 내 생각과 표현만 우선시하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불쾌하게 만들어선 안 되겠죠.

3. 권리가 남용되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언제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 돼요. 내게 존중받아야 할 권리가 있듯, 다른 사람도 똑같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기본적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